

2025년 7월 3일(목) 수시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사회재난팀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유 형 : 사건 사고

사진유무 : 사진있음 ■ 사진없음 □

과장	신성봉	051-888-2950
	김소영	051-888-1530
팀장	구경호	051-888-2953
	박재현	051-888-1603
담당자	석태진	051-888-2952
	박경옥	051-888-1604

부산시, 기장군 아파트 화재 사고 대응 총력... 돌봄서비스·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안전망 대책 마련

- ◆ 7.2. 22:58경 기장군 기장읍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 발생
- ◆ 7.3. 09:00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 개최...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강화 ▲재난약자 대상 초기진화 장비 지원 ▲노후 공동주택 소방설비 점검 등 논의
- ◆ 이어 10:50경 박형준 시장, 화재 사고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주문
- ◆ 박 시장,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돌봄 등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화재 예방 체계를 점검하겠다” 라고 밝혀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밤(7.2. 22:58경) 기장군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오늘(3일)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고 밝혔다.

〈기장군 아파트 화재사고 개요〉

- (일시) 2025. 7. 2.(수) 22:58분경 / (장소) 기장군 소재 아파트
- (사고내용) 아파트에서 연기 및 불꽃 신고, 화재 진압 중 실내에서 2명 발견, 병원 이송
- (피해현황) [인명] 사망 2명

- 먼저, 오전 9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에서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강화 ▲재난약자 대상 초기진화 장비 지원 ▲노후 공동주택 소방설비 점검 및 지원 ▲유가족 심리지원 ▲여름철 전기화재 예방 홍보 등이 논의됐다.

- 시는 구조적 원인 진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시 행정부시장 단장 하에 ‘재난약자 화재 예방 전담팀(TF)’을 운영할 계획이다.
- **시는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행에 나선다. 맞벌이 등으로 야간 돌봄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심야·새벽(22시~익일 6시) 등 취약 시간대에도 가정이 시간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 기존에는 해당 시간대 이용 시 할증요금 등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아이돌보미 연계가 어려워 실질적인 이용률이 낮았다. 이에 심야시간대 취약계층 이용가정 부담금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교통비·수당 지원) 등을 병행 지원해 돌봄 공백 없는 안심 육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또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입원 아동을 위한 ‘부산형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와 24시까지 운영하는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도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운영해 긴급 상황 시 안심 돌봄 기반 시설(인프라)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용가정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그 외 추가 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하며, 여성가족부에는 기준 확대 및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 **이어, 오전 10시 50분경 박 시장이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주문했다.**
 - 박 시장은 현장을 방문해 소방재난본부로부터 화재사고 대응상황을 보고 받고,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 **박형준 시장은 화재 사고 현장에서 “가슴 아픈 사고로 어린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돌봄 등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화재 예방 체계를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2

긴급 대책회의 사진

